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의 헌혈활성화 방안 연구

송민선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Blood Donation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ublic Health-Related Subjects

Min Sun Song

Dep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보건관련학과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헌혈 관련 특성, 자아존중감, 도덕적 행동에 따른 헌혈횟수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헌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보건관련학과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설문조사하였으며, 자료분석은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학년, 가족의 헌혈경험과 자아존중감은 헌혈횟수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헌혈횟수와 자아존중감 간에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헌혈횟수와 도덕적 행동간에는 관련성이 없었다.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의 헌혈횟수는 성별, 학년, 가족의 헌혈경험 및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헌혈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 가족의 참여를 격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헌혈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 및 홍보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보건, 학생, 헌혈 활성화, 자아존중감, 도덕적 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ifference and relations on frequency of blood donation, self-esteem and moral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ublic health-related subjects. 400 college students were survey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for a period from March to June 2014.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the SPSS program.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ces in frequency of blood donation according to gender, grade, blood donation experience of family members and self-esteem.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requency of blood donation and self-esteem.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frequency of blood donation and moral behavior. In conclusion, it has found out that the frequency of blood dona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ublic health-related subjects was related with gender, grade, blood donation experience of family members and self-esteem.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consider that encouragement of participation in blood donation to family members would be an effective way to increase frequency of blood donation and then It would be ideal to utilize in establishing policies and promotions towards revitalization of the blood donations.

Key Words : Public health, Students, Revitalization of blood donation, Self-esteem, Moral behavior

Received 26 September 2014, Revised 28 November 2014
Accepted 20 April 2015
Corresponding Author: Min Sun Song(Dep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Email: mssong@Konyang.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구 노령화 및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헌혈 가능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평균수명의 연장과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혈액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1], 2008년부터 혈액수급관리 표본감시체계를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2]. 대한적십자사 통계에 따르면 연령별 헌혈 비율은 20-29세가 40.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9세 이하가 38.5%로 10대와 20대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대학생이 30.4%, 고등학생이 25.5%, 회사원이 17.4%, 군인이 13.3% 순이었으며, 50% 이상이 학생들로 확인되었다[3]. 이러한 결과에서 대학생들이 헌혈 참여율이 가장 높고 많은 공혈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혈액기증자라고 할 수 있다[4].

이처럼 혈액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 있어 성별과 연령[5, 6], 성별과 최근헌혈자발도[4], 헌혈홍보경험자, 홍보매체 및 사회봉사적 태도[6],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 이타주의, 미래에 대한 투자[7], 헌혈에 대한 지식수준[5, 8, 9]이 헌혈에서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그 중 이타성이 헌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0]. 이타성이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헌혈행동을 보이며, 헌혈을 한 학생들의 헌혈 동기 중 가장 응답율이 높았던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라고 한 김과 신[11]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남을 도우려는 행동이 결국 헌혈을 하게 하게 하며, 이러한 태도에 대해 오[12]는 사회적 책임감, 공감 및 도움행동 경향이 높아질수록 사회봉사활동 경험이 많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올바르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회지향적인 행동을 도덕적 행동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도덕적 행동 또한 헌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13].

헌혈을 하고자 하는 긍정적 동기에 대해 황[14]의 연구에서는 이타주의 외에 헌혈의 필요성과 수혈을 받은 후에 다시 헌혈을 하는 경우, 개인이나 집단의 기대나 요구에 대한 사회적 압력 즉 주변의 부모나 친구들의 모델에 의하여 헌혈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교육 뿐만 아니라 학교, 청소년단체에서의 교육을 제언한 바 있다. 이처럼 헌혈행

위에 있어서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의 헌혈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동기로 헌혈행위를 하는 대상자들 중 반복적 헌혈 대상자들은 규칙적 운동이나 정기적인 신체검진 등의 활동을 하는 등 긍정적 건강행위를 가지며, 또한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도 하였다[15]. 홍과 박[16]의 연구에서는 헌혈횟수와 건강증진행위는 상관관계가 있었던 반면, 자아존중감과는 관련성이 없는 연구도 있었으나 자아존중감이 건강실현에 직접적으로 관계한다고 하여[17] 헌혈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확인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헌혈에 대한 선행연구들로는 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8, 9], 헌혈에 미치는 영향요인[4-6]을 본 연구들이 있으나 헌혈에 대한 이타주의적 측면을 본 연구는 없었다. 특히 본 연구자는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다른 전공학생들보다 더 이타적이라고 나타난 오[12]의 연구에서처럼 앞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 종사하게 될 보건관련학과 의 대학생들에서도 이러한 성향이 강할 것으로 생각되어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이 헌혈을 얼마나 시행하고 있는지,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도덕적 행동에 따라 헌혈횟수의 차이는 어떠한지 파악하고, 이들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의 헌혈관련 특성을 파악하여 헌혈횟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보건관련학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헌혈 관련 특성, 헌혈횟수, 자아존중감, 도덕적 행동을 파악한다.
- 2) 보건관련학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헌혈 관련 특성, 자아존중감, 도덕적 행동에 따른 헌혈횟수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보건관련학과 대학생의 헌혈횟수, 자아존중감 및 도덕적 행동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보건관련학과 대학생의 헌혈횟수, 자아존중감 및 도덕적 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헌혈 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지방에 소재한 4개 대학의 간호학과 49명, 메디컬스킨케어과 25명, 상담심리학과 26명, 운동처방학과 152명, 응급구조학과 56명, 임상병리학과 31명, 재활보건관리과 53명, 치위생학과 9명의 8개 보건관련학과 대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 401명이 참여하였고 설문답변이 미비한 1개를 제외하고 400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 계산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중간의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으로 하였을 때, 342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다[18](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 탈락율을 고려하여 400개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따라서 본 대상자는 분석을 위해 충분하였다.

2.3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3월 2일부터 2014년 6월 10일까지로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헌혈 관련 특성, 자아존중감 및 도덕적 행동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를 시행하기 전 연구자와 연구원이 해당학과의 담당교수에게 허락을 받은 후 직접 대상자를 만나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경우만을 시행하였다.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이 응답한 설문지는 개인의 이름을 적지 않은 무기명 설문조사로 모두 부호화하여 응답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수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2.4 연구 도구

2.4.1 일반적 특성 및 헌혈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헌혈 관련 특성은 성별, 학

년, 종교, 가족이나 형제의 헌혈참여 여부, 부모의 헌혈에 대한 태도, 헌혈횟수를 조사하였고, 그 외에 헌혈을 하였다면 하게 된 동기와 헌혈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다.

2.4.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전[20]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 4점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0.84이었다<Table 1>.

2.4.3 도덕적 행동

도덕적 행동은 Eisenberg, Fabes, Schaller와 Miller[21], Rushton, Chrisjohn와 Fekkin[22]의 이타성 자기 보고식 검사를 번안한 것을 기초로 이[23]의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8문항의 5점 척도로 ‘아니다’는 1점, ‘한 번 정도’ 2점, ‘한 번 이상’ 3점, ‘가끔’ 4점, ‘자주’ 5점이다. 도움주기, 공감하기, 보호하기, 나눠주기, 친절하기, 협력하기의 내용들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행동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0.95였다<Table 1>.

<Table 1> Reliability of measurement scale (N= 400)

Scale	Reliability
Self-esteem	0.84
Moral behavior	0.95

2.5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및 헌혈 관련 특성, 자아존중감 및 도덕적 행동에 따른 헌혈횟수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시행하였다. 또한, 헌혈횟수, 자아존중감 및 도덕적 행동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헌혈 관련 특성

대상자 400명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은 평균 21.6±2.1세이며, 성별은 남자 216명(54.0%), 여자 184명(46.0%), 학년은 1-2학년은 304명(76.0%), 3-4학년은 96명(24.0%)이었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174명(43.5%), 없는 경우가 226명(56.5%)이었다. 학년별 초회와 다회의 헌혈경험을 보면, 1-2학년군은 헌혈경험이 없는 경우가 93명(30.6%), 초회 헌혈은 48명(15.8%), 다회 헌혈은 163명(53.6%)이었고, 3-4학년군은 헌혈경험이 없는 경우가 27명(28.1%), 초회 헌혈은 8명(8.3%), 다회 헌혈은 61명(63.6%)이었다. 또한, 부모나 형제의 가족헌혈경험이 있는 경우는 262명(65.5%), 없는 경우는 138명(34.5%)이었다. 헌혈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적극적 찬성은 61명(15.2%), 대체로 찬성은 124명(31.0%),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음이 167명(41.8%), 대체로 반대 48명(12.0%), 적극적 반대는 없었다.

추가로 헌혈을 한 경험이 있는 280명의 학생들에게 헌혈을 하게 된 동기를 2가지 고르게 한 응답에서는 답변이 미비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헌혈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헌혈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헌혈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148명(52.9%),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123명(43.9%), 자원봉사활동 점수를 받기 위해서 55명(19.6%), 혈액이 필요한 자신의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서 39명(13.9%), 헌혈 후 주는 선물 때문에 37명(13.2%), 단순한 호기심에서 29명(10.4%), 헌혈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29명(10.4%), 필요할 때 찾아 쓰기 위해서 12명(4.3%), TV 또는 신문(광고)을 보고가 10명(3.6%), 단체 헌혈시 빠질 수가 없어서 9명(3.2%), 혈액검사(간염 등)를 하기 위해 7명(2.5%), 적십자 요원의 권유로 7명(2.5%), 헌혈의 집에서 헌혈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2명(0.7%), 종교적 이유 때문에 0명(0.0%) 순으로 나타났다.

헌혈 경험이 없는 120명의 학생들에게 헌혈을 하지 않는 이유를 2가지 고르게 한 응답에서는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107명(89.2%), 기타 빈혈, 건강상의 이유로 헌혈을 하러 갔으나 빈혈 등의 문제로 헌혈을 하지 못한 헌혈부적격자가 49명(40.8%), 웬지 꺼림직하고 두렵다

45명(37.5%), AIDS 같은 질환에 감염될까 봐 32명(26.7%), 건강에 나쁠 것 같아서 24명(20.0%), 헌혈요원의 불친절 11명(9.2%), 다른 건 다 쥐도 피를 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좋지 않다 6명(5.0%) 순이었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blood donation among subjects (N= 4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Age(yr)		21.6±2.1
Gender	Male	216(54.0)
	Female	184(46.0)
Grade	1-2	304(76.0)
	3-4	96(24.0)
Religion	Have	174(43.5)
	None	226(56.5)
Blood donation by grade	1-2 grade	
	No experience of blood donation	93(30.6)
	First blood donation	48(15.8)
	Multiple blood donation	163(53.6)
	3-4 grade	
	No experience of blood donation	27(28.1)
	First blood donation	8(8.3)
	Multiple blood donation	61(63.6)
Experience of Family blood donation	Yes	262(65.5)
	No	138(34.5)
Blood donation attitude of parents	Positive agreement	61(15.2)
	General agreement	124(31.0)
	No comment	167(41.8)
	General objection	48(12.0)
	Active objection	0(0.0)
The motive of blood donation (plural answer) (n=280)	The necessity of blood donation	148(52.9)
	To help others	123(43.9)
	Earning marks for public services	55(19.6)
	For the family or neighborhood who need transfusion	39(13.9)
	For gifts that blood donors will receive after donation	37(13.2)
	Personal curiosity	29(10.4)
	Being proud oneself by donating blood	29(10.4)
	To use blood when needed	12(4.3)
	TV or newspaper advertisement	10(3.6)
	Group blood donation	9(3.2)
For the screening test	7(2.5)	

The obstacle of blood donation (plural answer) (n=120)	Request of the blood center staff	7(2.5)
	Looking 'cool' to donate blood	2(0.7)
	For religious reasons	0(0.0)
	Don't want to donate blood without particular reasons	107(89.2)
	A disqualified person to donate blood	49(40.8)
	Fear from donating blood	45(37.5)
	Risks of being infected (e.g. AIDS)	32(26.7)
	Negative effects to health from donating blood	24(20.0)
	Received unkind services in blood donation centers	11(9.2)
	Negative perception of blood donation	6(5.0)

3.2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의 헌혈횟수, 자아존중감 및 도덕적 행동

대상자들의 평균 헌혈횟수는 평균 2.4±2.4회(범위 0-20회)로 헌혈경험이 없는 경우가 120명(30.0%), 1회는 56명(14.0%), 2회 45명(11.3%), 3회 57명(14.3%), 4회 40명(10.0%), 5회 41명(10.2%), 6회 이상 41명(10.2%)이었다. 또한,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1±0.5점이었으며, 도덕적 행동은 평균 3.4±0.7점이었다 <Table 3>.

<Table 3> Frequency of blood donation, self-esteem and moral behavior of subjects(N= 400)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Frequency of blood donation (number)	0	120(30.0)	2.4±2.4
	1	56(14.0)	
	2	45(11.3)	
	3	57(14.3)	
	4	40(10.0)	
	5	41(10.2)	
Self-esteem (score)	<31	191(47.7)	3.1±0.5
	≥31	209(52.3)	
Moral behavior (score)	<97	206(51.5)	3.4±0.7
	≥97	194(48.5)	

3.3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헌혈 관련 특성, 자아존중감, 도덕적 행동에 따른 헌혈횟수

일반적 특성 및 헌혈 관련 특성에 따른 헌혈횟수의 차

이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2.9회, 여자는 1.8회로 남자가 더 많았다(t=4.70, p=.001). 학년에 따라서 1-2학년군은 2.2회, 3-4학년군은 3.0회로 3-4학년군에서 더 많았으며(t=-2.49, p=.014), 가족의 헌혈경험에 따라서는 헌혈경험이 있는 군은 2.8회, 없는 군은 1.6회로 헌혈경험이 있는 군에서 더 많았다(t=5.43, p=.001). 반면, 종교 및 부모의 헌혈 태도는 헌혈횟수와 차이가 없었다.

자아존중감과 도덕적 행동을 평균점수로 분류하여 헌혈횟수를 비교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군은 헌혈횟수가 2.8회, 낮은 군은 2.0회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군에서 헌혈횟수가 많았으나(t=-3.29, p=.001), 도덕적 행동을 평균점수로 분류하여 헌혈횟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었다<Table 4>.

<Table 4> Frequency of blood don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elf-esteem and moral behavior (N=4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 ±SD	t or F	p
Gender	Male	2.9±2.5	4.70	.001
	Female	1.8±2.0		
Grade	1-2 grade	2.2±2.0	-2.49	.014
	3-4 grade	3.0±3.1		
Religion	Have	2.2±2.0	-1.37	.173
	None	2.5±2.5		
Blood donation experience of family	Yes	2.8±2.5	5.43	.001
	No	1.6±1.9		
Blood donation attitude of parents	Positive agreement	3.1±3.4	1.57	.104
	General agreement	2.3±2.2		
	No comment	2.1±2.0		
	General objection	2.5±2.2		
Self-esteem (score)	<31	2.0±2.0	-3.29	.001
	≥31	2.8±2.6		
Moral behavior (score)	<97	2.3±2.2	-0.79	.428
	≥97	2.5±2.5		

3.4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의 헌혈횟수, 자아존중감 및 도덕적 행동간의 상관관계

헌혈횟수, 자아존중감 및 도덕적 행동간의 상관관계는 헌혈횟수와 자아존중감간에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r=.16, p=.001), 헌혈횟수와 도덕적 행동간의 상관관계는 없었다<Table 5>.

<Table 5> Correlation of frequency of blood donation, self-esteem and moral behavior (N=400)

Variables	Self-esteem r(p)	Moral behavior r(p)
Frequency of blood donation	.16 (.001)	.05 (.370)

4. 논의

혈액사용량의 증가와 더불어 혈액의 수요량이 부족하여 이를 위해 대상자들의 처음 헌혈경험부터 올바른 헌혈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지속적인 헌혈을 할 수 있는 방향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 종사하게 될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은 타인의 건강과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24], 이들에게는 특히 대상자들을 존중하고 타인을 돕는 배려하는 마음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헌혈 관련 특성, 자아존중감, 도덕적 행동에 따른 헌혈 횟수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1.6세였으며, 헌혈횟수는 평균 2.4회로 나타났다. 그러나 헌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학생이 30.0%였으며, 1회 시행자가 14.0%였다. 이는 감 등[5]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48.2%가 헌혈을 한 경험이 없으며, 18.2%에서 1회 헌혈을 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헌혈에 대한 무경험자 30.0%가 감 등[5]의 연구보다는 낮은 비율이었으나 여전히 헌혈의 무경험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 등[5]은 헌혈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관심, 건강상의 이유, 헌혈과 관련된 두려움이라고 하였으며, 홍, 최와 박[25]은 일반헌혈경험이 없는 첫 공여자에서도 헌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빈혈 등의 건강상의 이유로 헌혈을 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하고 싶지 않은 무관심, 꺼림칙하다는 두려움, AIDS 등의 질환에 옮을까봐 등의 건강상의 이유가 헌혈을 하지 않는 이유로 나타나 감 등[5]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고[8], 헌혈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대한 무관심이 헌혈을 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AIDS 등의 질환에 감염될까봐 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아 헌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구[8]는 우리나라의 헌혈에 대한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헌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있으나 봉사정신의 부족도 이유로 들고 있었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헌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한데, 대학생의 스마트폰의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감염 등의 헌혈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헌혈의 무관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헌혈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스마트폰은 대학생들에게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른 연령대보다 다양한 기능이나 기술 활용에 더 민감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며[26], 무선인터넷 사용에 있어서도 12-19세는 93.4%, 20대는 99.4%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이 중 90.3%가 무선인터넷의 접속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27] 이를 활용한 헌혈 홍보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적십자에서 만든 스마트헌혈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헌혈에 대한 정보 등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홍보 및 보완을 시행하여 향후 헌혈의 비율 및 횟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헌혈횟수의 차이를 본 결과 남자가 여자에 비해 헌혈횟수가 높았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헌혈횟수도 높았다. 이는 전체 헌혈횟수를 확인한 것으로 3-4학년에서는 다회 헌혈자가 63.6%임에 비해 1-2학년에서는 53.6%로 3-4학년에서 다회 헌혈자가 많아 나타난 결과이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3], 만 20-29세의 헌혈비율이 남자 42.1%, 여자 35.8%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헌혈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회 헌혈자의 비율이 남자는 15.2%, 여자는 23.6%, 다회 헌혈자의 비율이 남자는 84.8%, 여자는 76.4%로 나타나 헌혈을 시행해 본 적 있는 대상자에서 지속적으로 헌혈을 하는 본 연구결과와 같았다. 그러나,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 군 입대 등으로 헌혈횟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1-2학년의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점을 볼 때 이처럼 반복하여 헌혈을 시행하는 헌혈자들이 초회 헌혈자들 뿐 아니라 비헌혈자들에게도 헌혈에 참여했던 경험과

느낌을 알려주어 대리적 경험을 얻도록 하며, 초회 헌혈자들에게 칭찬과 자신감을 부여하여 헌혈에 대해 두려움을 극복하며,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 중재가 된다고 하였다[28].

또한, 가족의 헌혈경험여부가 헌혈횟수에 차이를 보였으며, 가족의 헌혈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헌혈횟수가 높았다. 이는 가족의 혈소판 헌혈 경험이 있는 경우 혈소판 헌혈 참여의지와 일반헌혈 참여의지가 모두 높게 나타난 최 등[10]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족의 경험에 대해 많이 다루지 않고 있어 비교가 어려웠으나 헌혈횟수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내재적 동기가 클수록, 인적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헌혈 의지가 높다고 하여 결국 헌혈에 대한 행동이 내재화되어 재헌혈에 참여하는 의지가 강하게 되고, 헌혈이 남을 도와준다는 이타주의적 측면이 재헌혈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김 등[29]의 보고를 보더라도 가족의 헌혈을 보면서 헌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쌓게 되고 이로써 지속적인 헌혈참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대상자들의 주관적인 답변이나 부모님의 헌혈에 대한 태도에서도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1.8%임을 감안해볼 때, 가족의 경험이나 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헌혈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부모나 교사가 이타성의 모델이 되어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고려하고, 실제 헌혈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제시한 김과 신[11]의 의견처럼 가족의 헌혈 경험이 모델이 되어 대학생들의 헌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나누어 헌혈횟수를 비교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헌혈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과 박[16]의 연구에서 헌혈횟수가 높은 군에서 건강증진 행위나 자아존중감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으며, 사람은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받아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고 변화시키게 되므로[30] 자아존중감의 증진 또한 헌혈횟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도덕적 행동에 따라서는 헌혈횟수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이전의 헌혈경험이 앞으로의 헌혈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연구[5, 11], 봉사적 측면이 헌혈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10, 29]처럼 헌혈에 대한 도덕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들의 도덕적 행동 점수가 평균 3.4점으로 높았고, 보건관련학과 대학생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헌혈에 대한 동기 역시 헌혈의 필요성을 알고,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많은 학생들에서 이미 도덕적 행동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과 헌혈횟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헌혈횟수, 자아존중감 및 도덕적 행동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헌혈횟수와 자아존중감과는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으나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덕적 행동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홍과 박[16]의 연구에서는 헌혈횟수와 자아존중감과는 관련성이 없었다. 또한, 김과 신[11]은 이타성이 높을수록 헌혈실천율이 높다고 하였으며, 양[4]도 헌혈자가 비헌혈자에 비해 사회봉사적 태도 점수가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달라 대단위 표본수를 통한 확대연구와 비보건관련학과 대학생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일부 지방소재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보건관련학과들이긴 하나 전공학과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고,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다양한 측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도덕적 행동 점수가 처음부터 높았던 보건관련학과의 특성과 도덕적 행동에 대한 학습된 답에 대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모든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것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로 환자들을 담당하게 될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대상자들의 특성과 헌혈횟수와의 관련성에서 볼 때 연령, 학년 외에 가족의 헌혈경험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 한명 한명의 홍보나 생애주기 중의 한 시점의 집중적 홍보가 아닌 가족단위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 특히 혈액원인력이 간호를 포함한 보건관련인력으로 이들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해 헌혈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31]의 연구에서도 헌혈자들의 헌혈 재참여 의지에 대해 참가 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헌혈 참여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어 이러한 부분들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헌혈에 있어 대상자들의 내재적 동기가 중요한 요인이며 부모나 교사가 이타성의 모델이 된다는 본 연구결과나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남을 돕고 자 하는 인성적인 측면에 대한 교육 강화도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 40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헌혈 관련 특성, 자아존중감, 도덕적 행동에 따른 헌혈횟수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통해 헌혈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건관련학과 대학생 400명 중 헌혈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280명(70.0%)이었으며, 헌혈경험이 없는 대학생은 120명(30.0%)이었다.
2. 일반적 특성 및 헌혈 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자에서 헌혈횟수가 많았고, 3-4학년이 1-2학년에 비하여 헌혈횟수가 많았다. 또한, 가족의 헌혈경험이 있을수록 헌혈횟수가 많았다. 또한,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은 군에서 헌혈횟수가 많았다.
3. 헌혈횟수, 자아존중감 및 도덕적 행동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헌혈횟수와 자아존중감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은 성별, 학년, 가족의 헌혈경험 및 자아존중감이 헌혈횟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덕적 행동은 헌혈과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헌혈에서는 가족의 경험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헌혈에 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헌혈에 대해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노출로 헌혈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헌혈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학생들에서 자원봉사점수를 받기 위해서 헌혈을 한 경우도 있어 이를 배제하고 자발적으로 헌혈을 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둘째,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로 다른 계열 및 학과별 비교가 필요하며, 가족들의 헌혈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헌혈에 대한 인식이나 가족단위의 헌혈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J. A. Oh, J. Y. Shin, K. Y. Lee, K. E. Jeong, C. R. Seo, Y. S. Choi, D. H. Lee, The status of the blood inventory monitoring system, 2009-2012. The Korean Journal of blood transfusion, Vol. 24, No. 1, pp. 33-40, 2013.
- [2] The Division of Human Blood Safety Surveillance. Analysis and evaluation of monitoring blood usage and inventory levels: Korea Blood Inventory Monitoring System. Public Health Weekly Report, KCDC, 2, pp. 605-608. 2009.
- [3] Korean Red Cross. Korean Red Cross Blood Services Statistics 2012(Issue Brief no. 11-1352000-000016-10).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
- [4] J. H. Yang. The factor of undergraduate student's blood don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4.
- [5] S. Kam, S. A. Kim, Y. S. Kang, K. S. Park, J. H. Son, M. H. Yeh, K. E. Lee, J. G. Kim, D. H. Song, Factors affecting blood donation i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blood transfusion, Vol. 8, No. 2, pp. 301-312, 1997.
- [6] K. S. Park, Factors related to participate in blood donation of university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10.
- [7] B. C. Leibrecht, J. M. Hogan, G. A. Luz, K. I. Tobias, Donor and nondonor motivations. Transfusion, Vol. 16, No. 2, pp. 182-189, 1976.
- [8] M. S. Koo, A stud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blood donation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1998.

- [9] M. S. Park, Y. H. Cho, K. H. Kim, A study on attitude and knowledge to blood donation and transfusion for the donors. *Inje Medical Journal*, Vol. 20, No. 1, pp. 523-536, 1999.
- [10] M. J. Choi, J. H. Wee, K. H. Lee, C. K. Kim, Affecting factors on the willingness to platelet apheresis. *The Korean Journal of blood transfusion*. Vol. 13, No. 1, pp. 53-67, 2002.
- [11] Y. J. Kim, M. H. Shin, The effect of knowledge and altruism on the blood donation behavior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blood transfusion*, Vol. 21, No. 1, pp. 16-24, 2010.
- [12] K. T. Oh, A study on the altruistic attitudes of social welfare major university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2002.
- [13] G. H. Song,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oral self, self-control, empathy, and mor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2012.
- [14] M. H. Hwang, A study on the altruism of young blood dona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0.
- [15] B. Resnick, L. S. Jenkins, Testing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elf-efficacy for exercise scale. *Nursing Research*, Vol. 49, No. 3, pp. 154-159, 2000.
- [16] K. H. Hong, H. R. Park, A study on the repeated blood-donat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blood-donors.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Vol. 17, No. 2, pp. 333-341, 2003.
- [17] A. F. Muhlenkamp, J. A. Sayle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positive health practices. *Nursing Research*, Vol. 35, No. 6, pp. 334-338, 1986.
- [18]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No. 2, pp. 175-191, 2007.
- [19]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0] B. J. Je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Vol. 11, pp. 107-130, 1974.
- [21] N. Eisenberg, R. A. Fabes, M. Schaller, P. A. Miller, Sympathy and personal distress: Development, gender differences, and interrelations of indexe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Vol. 44, pp. 107-126, 1989.
- [22] J. P. Rushton, R. D. Chrisjohn, G. C. Fekkin, The altruistic personality and the self-report altruism scale. *Person Individual Difference*, Vol. 2, No. 4, pp. 293-302, 1981.
- [23] S. J. Lee,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intelligence and prosocial behavior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1.
- [24] K. J. Ji, J. Y. Yoo, A study of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happiness university student division of health.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10, pp. 653-660, 2013.
- [25] S. I. Hong, S. E. Choi, H. R. Park, The anxiety and discomfort of platelet donors.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Vol. 14, No. 1, pp. 172-181, 2000.
- [26] S. J. Kang, A Study on the smartphone addiction according to smartphone use pattern, the stress, self-control and family communication of college students in Ulsan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2014.
- [27]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Survey on the wireless internet usage. Retrieved December 20, 2012. from <http://www.kisa.or.kr>, 2012.
- [28] K. H. Hong, H. R. Park, K. Y. Sohng, The self-efficacy and critical factors of apheresis blood-donors.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Vol. 17, No. 1, pp. 122-131, 2003.
- [29] S. Y. Kim, K. Y. Kim, M. S. Lee, B. J. Na, K. H. Oh, H. J. Hwang, K. Heo, T. M., Kim, S. H. Lee, The factors affecting the will of blood redonation.

Konyang Medical Journal, Vol. 6, No. 2, pp. 53-65, 2006.

- [30] M. S. Lee, P. K. Chae,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Vol. 12, No. 1, pp. 63-75, 2012.
- [31] D. H. Lee, Segmenting blood donors by motivations and strategies for retaining the donors in each seg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3.

송 민 선(Song, Min Sun)



- 1998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석사(간호학석사)
- 200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박사(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만성질환, 노인, 건강증진
- E-Mail : mssong@konyang.ac.kr